

靑, 장관급 8명 개각... “문 정부 개혁 안정적 추진 ‘역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8개의 장관급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또 조운제 주미대사의 후임에는 이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과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법무-조국 전 민정수석
- 과기-최기영 서울대 교수
- 농식품-김현수 전 차관
- 여가-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 금융위-은성수 수출입은행장
- 공정위-조성욱 서울대 교수
- 방통위-한상혁 변호사
- 국가보훈처장-박삼득 회장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과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고 대변인은 “김현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이고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는 평가”라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약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축수산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에서 8개의 장관급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대 경연대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각각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정기념사업회 회장이 내정됐다.

고 대변인은 “은성수 후보자는 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금융 분야 주요 직위를 담당해온 전문 관료 출신이고,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해결했다”며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욱 후보자는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다.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우리 전진정을 수차례 이끌어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며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서 인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등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도 방송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삼득 내정자는 현 전정기념사업회 회장으로 30여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야전 및 정책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중장 출신이고 전정기념사업회 회장 재직 중에는 조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라며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

주미대사에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외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장관 차관급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임명

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후임 주미대사에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고 대변인은 “이수혁 내정자는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며 “한미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고,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대학을 임명했다. /뉴시스

“검찰개혁 완수”...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이순신 장군 한시 인용... 개혁 의지에 뜻 “공정한 법질서 확립·법무부 혁신할 것”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9일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피아발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했다.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陣中吟)” 한 대목인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에서 따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

(誓海魚龍·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 잡한다)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잘 소통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또 보충 소감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율러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헌법정신 구현과 주권수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중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



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는 소감 발표와 함께 별도 질의 응답을 하지는 않았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에 바로 지명된 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장관 내정을 누구에게 연락 받았는지’ 등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고 곧바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팀 구성 등은 이르면 내일 발표 예정이다. 소감 발표가 이뤄진 적선현대빌딩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됐다.

이날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완

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겸·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지속해 추진해왔던 조 후보자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핵심 국정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해공고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 개혁 과제를 함께 해나갈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법대 동문이지만 조 후보자가 82학번으로 3년 후배다.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로 꼽혀왔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2년 여간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동안 검사 출신이 주로 법무부 장관에 올랐지만 비(非)검찰에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뉴시스

전북출신 靑 장관급 개각 인사

이정옥 여가부장관 후보자 “예상 못해 놀랐다”

다방면에서 대외활동 벌여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지난 9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놀랐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여성, 양성평등 관련 사회활동을 많이 하였고 진보성향 매체쪽으로도 기고도 많이 했다”며 “진보여성사회화 지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옥 후보자는 전북 전주여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를 따낸 뒤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재직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위원장, 코이카 업무추진단, 외교부 여성평화이니셔티브 활동 등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혁신 가속화 방침”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9일 “혁신을 통한 금융서비스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 금융정책의 범주를 혁신에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신임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가장 주력을 둘 금융 분야로 혁신의 가속화를 꼽았다. 은 후보자는 “소비자와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등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을 통해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종구 금융



위원장이 일관성 있게 정책금융을 추진했는데 저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수출관련 규제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그는 “현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최위원장의 노선을 따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과 관계에 대해서 “금융위는 정책수립 기관이고 금감위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라며 “정책 협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후보자는 전북 군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와이대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에 재직중이다. /뉴시스

靑 개각 日 보복에 ‘반도체 전문가’ 전면 배치

문 대통령, 구원투수로 최기영 서울대 교수 영입 “반도체 세계 1위 달성 기여... 과학기술 경쟁력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일본의 경제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당초 이번 개각은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의 길을 터주고 집권 중반기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당초 유영민 현 과기부 장관은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당분간 유임되는

분위기가였다. 하지만 개각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변수가 불췌했다. 유 장관이 연내에는 총선 출마(부산 해운대갑)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3월 조동호 후보자가 내미한 이후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1순위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최근 다시 러브콜을 보냈고



최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현장과 학계를 모두 경험한 반도체·인공지능(AI) 설계 전문가로, 서울대 전자공학부 출신으로 삼성사와 미국 케 이스트 디자인 시스템에서 근무했고 카 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반도체 시스템을 연구해왔다. 서울대에서 AI 반도체를 연구하는 뉴럴프로세싱연구센터(NPSC)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

를 발표하면서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는 일본의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 정치인 출신보다는 전문가를 전면배치해 대비책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뉴시스